

## EBS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 철회에 대한 시청자 민원

수신	EBS 장해량 사장
발신	(가)페미니즘교육실현을위한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교조여성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등성평등연구회, 페미니스트 교사모임, 페미당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날짜	2018년 1월 22일(월)
제목	[시청자민원]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 철회 건

1. EBS는 지난 1월 13일 <까칠남녀> 출연자인 은하선 작가에게 하차를 통보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단체들이 이를 철회하라는 논평과 성명을 발표 하였으며 함께 출연하였던 출연자들 또한 해당 방송 녹화를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1월 17일 EBS는 은하선 작가의 하차에 대한 공식 이유를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은하선 작가가 개인 SNS에 성소수자운동 단위의 후원문자 번호를 프로그램 담당 PD의 전화번호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사기죄’ 로 명명하여 이러한 사람은 EBS 출연자로 부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은 지난 성소수자 특집 방송 이후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담당 PD의 개인 휴대번호로 폭력적 연사를 반복한 것에 대한 대항 행위였고 공식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두 경고조치로 끝난 사안입니다.
3. 두 번째 이유는 개인 계정에 십자가 모양의 달도 사진을 올렸고 기독교를 조롱하였다는 민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EBS출연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EBS가 비겁하게도 민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4. 이 모든 하차 이유는 성소수자 방송에 대한 반대 시위와 무관하며 단지 제기된 ‘민원’을 검토한 결과, 공영방송인 EBS의 출연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담당 CP의 최종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 성소수자, 언론, 교육계 단체들도 EBS에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 또한 검토하여 1월 25일까지 답변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가)페미니즘교육실현을위한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스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27개 단체 및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교조여성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등성평등연구회, 페미니스트 교사모임, 페미당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붙임] 여성, 성소수자, 언론, 교육계 논평 및 성명서

#까칠남녀\_은하선\_하차반대  
EBS는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시청자 민원에도 응답하라

2월 종영을 앞둔 EBS <까칠남녀>는 “대한민국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용기 내어” 시작한 ‘젠더 토크쇼’다. 직장 내 성차별, 데이트폭력, 피임, 임신중단, ‘맘충’, ‘꽃뱀’과 같은 여성 혐오표현 등 평소 방송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이슈들을 다뤘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역할이 어떻게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강요되어 왔는지를 일상 속의 관계, 공간들을 기반으로 다루며 사회적 토론을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젠더이슈를 전면에 다룬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후 어떤 방식으로 보완·확장되어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방송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EBS가 첫 방영 때부터 고정 패널로 참여해온 은하선 작가를 마지막 2회분 녹화를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하차시켜 사회적으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에 발표된 공식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는 하차 이유는 하차 반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인 개인 SNS에 성소수자운동 단위의 후원문자 번호를 프로그램 담당 PD의 전화번호로 올린 행위를 ‘사기죄’로 명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맥락을 삭제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 성소수자 특집 방송 이후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담당 PD의 개인 휴대번호로 폭력적 언사를 반복한 것에 대한 대항 행위였다. 공식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안은 구두로 경고조치가 끝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갑작스럽게 마지막 방송 촬영을 앞둔 시점에서 ‘사기’로 단정하여 하차의 이유로 언급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EBS의 구성원이 혐오세력에 공격을 받는 동안 방송사에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 묻고 싶다.

두 번째 하차통보 이유도 문제이다. 십자가 모양의 딜도 사진 게시는 방송출연 전인 2016년 개인계정에 올린 사진이다. 하차결정은 “기독교와 가톨릭을 조롱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EBS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개인계정에 딜도 사진을 올리는 행위가 어떻게 종교를 조롱하는 것과 연결되는지, 그것이 그간 여성이 성적주체로서 존재함을 자신의 이야기로 계속 보여준 은하선 작가를 하차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것인가. 이는 EBS가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기반으로 한 단체들이 집회현장에서 피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음란’하고 ‘저질’스러운 내용으로 모독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정은 그간 <까칠남녀>가 보여주고자 했던 제대로

된 성교육의 필요성과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연자에 대한 하차요구는 방송초기부터 있었음에도 이제야 민원이 제기되어 검토 끝에 결정된 것이라는 변명도 공색하다. 현재 은하선 하차에 대한 반대 민원도 공식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플랫폼에 차고 넘친다. 그렇다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할 것이다.

EBS는 해당 결정이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말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이 시작된 이유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배제하는 혐오세력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영향력으로 여성이 성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자신을 성소수자로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한 혐오발화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권리를 침해당해도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라는 불신이 강화될 것임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은하선 하차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우리의 민원에 즉각 응답하라.

2018년 1월 18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기독교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춘천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 주부모임

##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 철회하라! EBS야말로 교육방송으로 '결격'

지난 1월 13일, EBS가 〈까칠남녀〉 고정출연자 은하선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했다. EBS는 은하선 작가의 '결격사유'를 주장하지만, 하차 통보의 진정한 배경은 혐오세력의 공격이다. 성소수자 특집(12월 25일과 1월 1일) 방영을 기점으로 급증한 혐오세력의 공격은 특히 은하선 작가를 표적으로 삼아왔다.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에 반발하여 다른 출연자들(이현재, 손희정, 손아람)이 녹화를 보이콧 선언했고, 현재 17일로 예정된 녹화는 취소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는 작년 12월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하 세바시)〉 사건과 유사하다. 〈세바시〉 역시 혐오세력과 윗선의 입맛에 안 맞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강연자의 강연영상을 삭제했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고 다시 공개한 바 있다. 은하선 작가 하차는 이처럼 성소수자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미디어에서 삭제하거나 왜곡에 앞장서온 역사의 반복이다.

또한 이는 성적으로 주체적인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다. 바이섹슈얼 여성, 섹스칼럼니스트, 쿼어 페미니스트인 은하선 작가는 〈까칠남녀〉에서도 성차별, 성적 고정관념, 성소수자혐오에 대해 적극 발언하며 프로그램이 '젠더토크쇼'의 취지를 살리도록 역할을 했고, 그렇기에 더욱 공격대상이 되어왔다. 그런데 방송국조차 혐오공격으로부터 출연진을 보호하기는커녕 딜도 제품사진 따위를 트집 잡으며 은하선 작가를 '결격사유'가 있는 출연진으로 매도했다.

EBS는 자사의 '결격'을 깨닫기 바란다. 섹스토이와 성소수자의 섹스를 죄악시 하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 '젠더토크쇼'다. 은하선 작가가 성소수자의 삶을 말할 때는 '말하지도, 알려서도 안 되는' 성적인 것을 말한 것처럼 공격받고, 남성 방송인의 성폭력 두둔, 성소수자 모멸은 '의견'으로 취급되어 왔다. 지금껏,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자식 낳고 뒷바라지하다가 또 그 자식이 자식 낳기를 지켜보는 삶'으로 여성의 삶을 함부로 축약하고 그것만이 바람직한 여성의 행복이라고 강요하는 자들에게 마이크가 주어졌다. 성소수자를 조직과 사회에서 내치고 모든 '음란'을 삭제할 때, 그것은 기존의 섹슈얼리티 위계, 이성애 질서, 여성 억압의 존속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점을 이 사건은 드러낸다.

EBS는 하차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하차 통보의 책임이 은하선 작가가 아닌 EBS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은하선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데 공식 사과하라. 〈까칠남녀〉가 성소수자의 말을 왜곡 없이 경청하는 방송으로 많은 시청자에게 감동을 줬음에도, EBS는 종영을 앞두고 프로그램 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를 벌여 그간 함께한 출연진들과 시청자가 보낸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까칠남녀〉가

현명한 사태 수습을 통해 종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년 1월 17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통,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7개 단체 및 모임)

EBS는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까칠남녀>는 '젠더토크쇼'라는 표방에 맞게  
제작될 때에만 의미있다

EBS <까칠남녀>가 녹화 2회분을 남기고 고정출연자 은하선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이 바이섹슈얼임을 커밍아웃한 은하선 작가는 EBS <까칠남녀> 내에서 성소수자 입장을 적극적으로 발언해온 인물이다. 그 같은 은하선 작가를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항의에 타협하듯 하차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다.

EBS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은하선 씨 하차통보 결정의 근거를 '출연진 결격사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인지', '왜 최근에서야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사실상 답변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된다. EBS는 앞서 '모르는 형남-성소수자 특집'(12월 25일과 1월 1일)을 방영했다. 그 후, EBS <까칠남녀>를 향한 일부 개신교 세력과 보수 학부모 단체들은 집단적으로 EBS 사옥 앞과 로비에서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그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EBS의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는 우선 그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일선 제작진들과의 협의 없이 이른바 '윗선'에서의 결정이라는 점 그리고 '하차이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EBS 제작진이 아무리 '윗선'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행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하차통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EBS의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가 미디어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이다. 그동안 한국사회 내 성소수자들은 수많은 억압과 차별 속에 숨죽여 살아야했다. 그 같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싸움이 있었고 비로소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할 방송(<방송법> 제6조 5항)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오히려 성소수자들을 사회에서 가리고, 지우고, 왜곡하는 데 앞장서왔던 것이 방송이었다. 그런 점에서 성소수자 투쟁의 한 축은 미디어였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EBS <까칠남녀>의 방영이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이기도 하다.

EBS <까칠남녀>는 '젠더토크쇼'를 표방해 왔다. 젠더란 무엇인가. 가부장제로부터 시작된 이성애 중심으로 고착화돼 왔던 성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게 그 기본이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이야말로 젠더이분법 범주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계에 서 있는 증인들이다. ‘젠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의 이슈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EBS <까칠남녀>가 ‘젠더’를 표방하면서 은하선 작가를 강제하차 시킨 것은 그 자체로 모순돼 있다는 말이다.

EBS <까칠남녀> ‘모르는 형남-성소수자 특집’에 출연했던 성소수자 김보미 씨는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에게 조용히 살라고 한다, 나오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떠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EBS 역시 성소수자들에게 “조용히 살라”, “숨어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그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혐오세력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 ‘아,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저들을 사회에서 안보이게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일 될 수 있다. 혐오세력들에게 공공의 장소에서 혐오를 외치라고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이라는 말이다. 그만큼 EBS <까칠남녀>의 은하선 작가 하차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EBS는 ‘이 정도면 양 쪽에 성의를 보이는 것이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권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EBS가 이제라도 은하선 작가의 하차통보를 철회해야하는 까닭이다. <까칠남녀>는 ‘젠더토크쇼’라는 표방에 맞게 제작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2018년 1월 15일



##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가 문제였다는 EBS, 맥락 잘못 짚었다 : 재발방지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차통보 철회’ 뿐

“은하선 씨의 하차는 성소수자 방송에 대한 반대 시위와 무관하며, 더구나 성소수자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의 하차에 대한 EBS의 공식입장이다. EBS는 ‘출연진 결격사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사태를 한참 잘못 짚었다.

EBS의 공식 입장만 보더라도 은하선 작가의 하차 통보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혐오세력에 대한 굴복’임이 그대로 드러난다. EBS는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제기된 민원을 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EBS 측이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판단된다. △퀴어 문화축제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담당PD 연락처라고 게시한 것,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딜도) 사진 게재한 것이다. 하지만 맥락을 봐야 한다.

EBS 〈까칠남녀〉는 ‘젠더토크쇼’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혐오세력으로부터 공세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은 작가는 ‘퀴어축제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PD의 전화번호라며 올렸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EBS가 이미 ‘구두경고’로 조치한 바 있다. ‘구두 경고’가 급작스레 ‘하차 통보’로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 EBS는 설명해야 한다. 문제는 두 번째다.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 사진 게재. 하지만 해당 게시글은 은 작가가 〈까칠남녀〉에 출연하기 훨씬 이전인 2016년 1월에 게시했던 것이다. EBS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 ‘섭외 당시에 제작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됐고 하차 통보를 하게 됐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EBS에 묻고 싶다. 그 제보라는 것은 누가 한 것인가?

EBS 〈까칠남녀〉에 대한 공세는 ‘모르는 형남-성소수자 특집’ 편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일부 개신교 세력과 보수 학부모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EBS 사옥 앞과 로비에서 집회를 벌이는 때도 정확히 일치한다. 사태는 동성애-성소수자 혐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바이섹슈얼’임을 커밍아웃한 은하선 작가에 대한 제보가 그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시민사회는 EBS의 조치가 ‘성소수자 탄압’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정녕 EBS는 모른다는 말인가. 그런 점에서 EBS의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주장은 동문서답일 수밖에 없다.

EBS는 ‘공식입장’에서 은하선 작가의 하차와 관련해 “담당 CP의 최종 판단”이라고 밝혔다. EBS 〈까칠남녀〉 일선 제작진의 의견이 배재된 결정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EBS는 제작자율성은 간단히 무시해도 되는 방송사인가. 만약, 이 결정이 제작진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내려진 것이라면 장해량 사장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EBS를 향한 비판은 여전히 합당하고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할 수밖에 없다. EBS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은 "출연자 선정 시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하선 작가에 대한 하차 통보를 철회하는 것'이다. EBS <까칠남녀> 사태의 핵심은 미디어에서 성소수자를 지우고 가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나중에"라고 입을 막았던 순간을 말이다. 그 나중은 언제인가. 한국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많은 성소수자-인권활동가들도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고 EBS 사장도 바뀌었다. 하지만 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아웃되어야 하는가. EBS는 다른 답을 가져와야 한다.

2018년 1월 17일

## EBS는 EBS, '까칠남녀' 성소수자 출연자 하차 통보 취소하라

EBS가 내달 종영 예정인 <까칠남녀> 녹화 2회분을 남기고 성소수자 출연자인 은하선 씨에게 하차 통보를 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5일과 올해 1월 2일 '성소수자 특집' 이후 일부 개신교 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일산 EBS 사옥 앞에서 <까칠남녀> 폐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EBS가 은하선 씨에게 이런 통보를 했다는 점은 여러 측면에서 의문과 우려를 낳는다.

우선 지적할 문제는 공영방송이 일부의 혐오와 차별 행위에 굴복해서,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방송에서 누군가를 중도 하차시키는 상황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의 방송미디어에서 성소수자는 예능 프로그램의 희화화된 캐릭터로만 등장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다르지 않은 존재로 등장시킬 경우 해당 방송은 장르를 불문하고 특정 집단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런 경험을 학습한 방송 제작자들에게 성별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소수자에게도 의견 개진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송법과 각 사의 방송편성규약 속 조항들은 '죽은' 조항으로 남아 있었다.

이런 현실에서 <까칠남녀> 제작진은 성소수자인 은하선 씨를 출연자로 발탁했다. 은하선 씨 또한 방송에서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성소수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남성과 여성만으로 성(sex)을 나누고 이성애 중심의 고정된 성 역할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에서 최초의 '젠더(gender) 토크쇼'를 표방한 <까칠남녀>가 지난 9개월 동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다.

이와 같은 기획-제작의도를 내세운 <까칠남녀>가 '성소수자 특집' 이후 맞닥뜨린 일부 단체들의 거센 항의에 밀려 성소수자 출연자를 강제 하차시킨 것은, 성별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방송편성규약에 위반되고 또 방송 내용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대의에 역행하는 조치로 매우 우려스럽다.

두 번째 문제는 제작 자율성 침해 여부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은 필요에 따라 어떤 출연자를 기용하고 하차시킬지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하선 씨 하차는 일선 제작진들이 아닌 '윗선'의 결정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EBS 방송편성규약은 제작책임자로 하여금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제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BS노조나 PD협회 등 제작 자율성 보장의 주요 단위들은 이번 결정에서 방송 정상화의 제1조건인 제작 자율성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또 하차를 통보받은 성소수자 출연자에게도 의견개진의 절차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진상조사 해야 한다. 그 후 이에 따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EBS 회사 차원의 입장표명과 후속조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들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측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까칠남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국회 기자회견 개최에 협력하며 “EBS에서 반교육적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관련자 문책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며 소수자 집단을 차별하고 고립시킴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모으려는 수법으로 일관했다. 수십 년 동안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지지 세력을 규합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수단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공영 교육방송인 EBS의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 또한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되묻는다. 구체적으로 EBS <까칠남녀>의 어떤 점이 반교육적 내용이라는 것인가? 자신들이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반인권적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교육적이라는 것인가?

방송은 결코 혐오와 차별의 선전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오히려 방송은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권 담론을 형성하고, 방송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까칠남녀> 제작진과 EBS 경영진이 출연자 한 명을 하차시키는 문제가 아니다. <까칠남녀>는 공영방송으로서 충분히 다룰 수 있고 다뤄야 마땅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며, 교육방송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을 다룬 것이다. 그럼에도 EBS가 부당한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에 굴복한다면, 이는 다른 방송 제작진들에게 성소수자 관련 아이টে를 다루면 안 된다는 위축의 경험을 학습시킬 수 있다. EBS가 지금까지도 이번 중도하차 조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끝>

2018년 1월 16일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에 대한 일방적 하차 통보 사태는 서울의 한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혐오 세력의 공격과 본질이 같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에 대한 일방적 하차 통보 사태는  
서울의 한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혐오 세력의 공격과 본질이 같다

1. 최근 벌어진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에 대한 일방적 하차 통보 사태는 서울의 한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혐오 세력들의 공격과 본질적으로 같다. 혐오 세력들은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사람들로 왜곡비방하며 공격한다. 성정체성이 무엇이던지 인간으로서 존재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남성혐오와 동성애를 퍼뜨리는 위험하고 음란한 발상으로 낙인찍고 공격한다. 이러한 야만적 행태가 교육을 전면에 내거는 공영방송 사에서도 발생한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다. EBS 당국은 혐오 세력의 반인권적인 요구에 굴복하여 10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패널(panel)을 내쫓아버렸다.

2. '까칠남녀'는 한국 최초의 젠더(gender) 토크쇼답게 다양한 젠더 이슈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왔다.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과 논쟁들은 있었지만 특정인을 지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혐오 공격, 하차 주장, 프로그램 폐지 요구가 전면화 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계기로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는 '까칠남녀'를 "선정적이고 페미니즘 옹호 일변도"라고 매도하면서 "동성애 옹호 방송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도 "성 정체성을 파괴하고 페미니즘 확산하는 비교육적 젠더 토크"라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육방송 보다가 내 자식, 동성애자 될까봐 무섭습니다"라며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을 이어갔다. 이로써 지금을 마녀 사냥이 횡행했던 중세 암흑기와 동일시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신세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페미니즘이 어찌 "증오의 사상이고 남성을 공격하고 가족을 해체하는 악"이란 말인가?

3.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여성은 여전히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며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성별이분법 세계'의 노예들이다. 더욱이 성소수자는 드러나서는 안 되고 인권을 누릴 자격조차 없는 부도덕한 성적 욕망 덩어리로 간주되곤 한다. 이러한 반문명적인 현실 속에서 '까칠남녀'는 기울어진 성별의 운동장과 성별 고정관념을 문제 삼고 사회적으로 가려진 다양한 성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소개해왔다. 우리 사회의 무지와 편견, 그리고 이로 인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이 기울인 노력은 사회적으로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불편하게 여긴 세력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빌미 삼아 ‘까칠남녀’를 음란방송으로 규정하고 프로그램 폐지와 은하선 작가의 하차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누르는 자 누구인가?

여성·소수자들에게 혐오의 굴레를 씌우는 자 누구인가?

4. 소수자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지워버리려는 시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촛불정부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혐오와 차별은 본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전매특허’ 전략이었다.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양심 세력을 사회적 혐오와 적대의 대상으로 낙인찍어버리는 통치 전략은 공동체 내부의 위계와 차별을 내면화하게 만드는 사회문화적인 적폐를 낳았다. 힘 있는 자들의 일방적 통치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폭력을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5. 이러한 차별과 혐오의 상당한 부분이 엄마와 학부모의 이름으로 가해져 왔고 지금도 여전한 현실이다. 무릇 보호자라면 어린 세대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계 속에서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자신의 개성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들은 부모의 이름으로 어린이·청소년에게 혐오와 차별의식을 내면화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사회적 편견 앞에 한없이 무력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비하하여 자긍심을 꺾게 만드는 것이 아동 학대이자 사회적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일부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성소수자를 ‘비국민’으로, ‘비인간’으로 규정할 것을 공모함으로써 헌법과 인류 역사를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망언과 망발이 21세기 한국 사회 곳곳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6. ‘까칠남녀’와 같은 젠더 토크는 더 많아져야 하며,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이 도입되어야 한다. ‘까칠남녀’ 박미선 진행자는 방송 내내 성소수자 4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뒤 “무지와 편견을 해소하는 데 몹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야말로 공존과 안전 속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성소수자인 은하선 작가를 프로그램에서 내쫓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시화해야 할 때다.

7. 적폐는 즉각 청산하는 게 정답이다.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를 자임하는 나라에서 여성과 성소수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모순이 아니겠는가? 여성과 성소수자들을 열등 국민으로 내모는 사회문화적 적폐를 대대적으로 청산하여 이 땅에서 히틀러의 파시즘을 방불케 하는 퇴행적인 흐름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 이 유예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당장 발 벗고 나서기 바란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비극을 일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8.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당국은 은하선 작가의 방송 하차 결정을 취소하라!
- 전학연을 비롯한 혐오 세력들은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소수자들에게 자신을 긍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

9. 전교조는 민주 시민들과 연대하여 공동체 분열과 파괴를 부추기는 ‘혐오와 차별의 적폐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18년 1월 17일

끝